교정시설 재소자의 보건의료 관리실태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는 교정시설 입소자들을 위한 교정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더우기 재소자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은 다른 사안들에 비해 비교적 적었으며 교정의료에 관한 체계가 미확립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의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정의료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문헌고찰과 더불어 실제 실무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정의료의 시설 및 설비의 미흡함은 물론 교정조직의 문제와 더불어 재소자의 건강관리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교정의료의 전문인력의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언할 수 있는 내용은 먼저 교정의료의 건강관리체제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마련한다는 맥락에서는 교정의료의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재소자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를 실용화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통계적 자료의 노출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인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적 자료의 체계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view on Correctional Health Care of Custody Facilities

Yoo Hyang Cho*, Seung Mo Sung
*Dept. of Nursing, Cho Dang San Up University
Medical Law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e Korea now incarcerates a greater percentage of its Population than any other country: For 63,000 prisoners in 40 prisons and jails. Most immates are mate, young, poor, and morbidity groups. Most are substance abusers with substantial physical and mental health needs. Corrections in general and correctional health care in particular have suffered negative consequence: severe overcrowding, insufficient programs as th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AIDS), tuberculosis, and hepatitis. The larg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bstance abusers and sick and terminally ill inmates has rendered our nation's prisons and jails physically or financially unable to deal with their current populations, much less the explosive increases the future holds. It is the magnitude of inmate health problems that threatens to overwhelm the substantial gains made in correctional health care over the past two decades. As measured by recognized standards of inmate health and health services, our correctional systems are in crisis. As a nation, we must respond to the problem of health problem with national strategies that do not overwhelm the capacity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o care for its inmates.